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미 관세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OECD “전쟁으로 미 물가 올해 4.2% 상승” 전망
- YahooFinance: 미 신규실업청구건 21만건...여전히 양호한 수준

[미국 금융]

- YahooFinance: 미 증시, 휴전 오리무중에 하락세

[중동 위기]

- Bloomberg: 미국과 이란, 종전 조건 두고 서로 입장 달라
- WSJ: 도이치 뱅크, “투자자들 대부분, 4월말 휴전 전망”
- WSJ: 트럼프, 측근들에 “빠른 종전 원한다” 밝혀

[트럼프 행정부]

- WSJ: LA와 마이애미 등 이민 관련 인구 줄어

[오일]

- CNBC: “휘발유 가격 부담이 트럼프 감세 효과보다 크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H&M 등 의류업체들, 전쟁 계속 시 인플레 우려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War Hits Global Economy With OECD Seeing 4.2% US Inflation

OECD “전쟁으로 미 물가 올해 4.2% 상승” 전망

- 중동 지역의 분쟁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OECD는 밝혔다.
- OECD는 주요 경제국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인플레가 4.2%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중동 국가들의 해외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성장률을 낮추며, 금융시장 가격에 변동성을 주는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OECD Inflation Projections

	Forecast for 2026 inflation	Change vs prior	Forecast for 2027 inflation	Change vs prior
G-20	4%	1.2 PP	2.7%	0.2PP
US	4.2%	1.2 PP	1.6%	-0.7PP
Euro area	2.6%	0.7 PP	2.1%	0.1PP
Germany	2.9%	0.8 PP	2.6%	0.2PP
France	1.8%	0.5 PP	1.5%	-0.1PP
Italy	2.4%	0.7 PP	1.8%	0PP
UK	4%	1.5 PP	2.6%	0.5PP
Japan	2.4%	0.2 PP	1.9%	-0.2PP
China	1.3%	1 PP	1.1%	0.3PP
India	5.1%	1.7 PP	4.1%	0.1PP
Brazil	4.1%	-0.1 PP	3.8%	0PP

Sour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사

YahooFinance: US filings for jobless aid tick up last week to 210,000 but remain at historically healthy levels

미 신규실업청구건 21만건...여전히 양호한 수준

-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상승했다. 작년에 노동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직원 수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이 같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천 건 늘어나 21만 건을 기록했으나 이는 고용 현황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
-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주들과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Dow, S&P 500, Nasdaq slide as Wall Street weighs prospects for Iran truce

미 증시, 휴전 오리무중에 하락세

- 미국 주식은 오늘 목요일, 미국과 이란의 상반된 입장 때문에 중동 분쟁 종식 협상이 계속 불확실하면서 하락했다.
- S&P500은 0.55%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나 떨어지면서 거래되고 있다.
-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글로벌 경제 여파를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계속 상대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중동 위기]

Bloomberg: US and Iran Wrangle Over Talks With No End to War Yet in Sight

미국과 이란, 종전 조건 두고 서로 입장 달라

- 백악관은 이란 정부 측의 공개적인 대화 거부와 까다로운 종전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공격 금지 보장, 전쟁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 지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 이번 분쟁의 여파로 연료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와 식량 부족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악관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여부를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WSJ: Most Investors See a Cease-Fire by End of April, Deutsche Bank Survey Sh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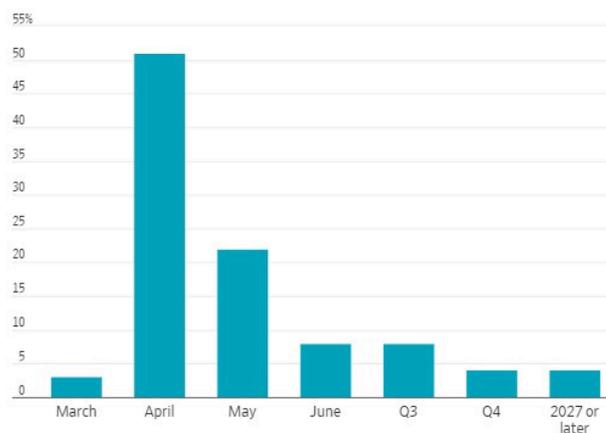
도이치 뱅크, “투자자들 대부분, 4월말 휴전”

- 많은 투자자는 중동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이치뱅크가 이번 주 초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휴전이 성립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42%였다. 5월 말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이 비율은 76%까지로 나타났다.
- 또한 대다수 투자자는 호르무즈의 봉쇄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5월 말까지 정상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 유가 상승세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응답자의 55%는 Brent 유가가 배럴당 \$13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Most Investors See a Cease-Fire by End of April, Deutsche Bank Survey Shows

By Caitlin McCabe, Reporter

Investors' expectations for when a cease-fire will be reached between the U.S. and Iran



Source: Deutsche Bank Research

Many investors aren't expecting the war—or some of its effects—to be long-lived.

기사

WSJ: Trump Tells Aides He Wants Speedy End to Iran War 트럼프, 측근들에 “빠른 종전 원한다” 밝혀

- 트럼프는 그의 참모들에게 길어지는 이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대략 4주에서 6주 기간 정도에서 이란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 미국은 현재 중동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외교적인 해결에 관심을 시사하고 있다.
- 또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인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워싱턴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해 오고 있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Los Angeles, Miami and San Diego Are Shrinking as Immigration Slows

LA와 마이애미 등 이민 관련 인구 줄어

-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권은 이민 유입의 급격한 감소와 기존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 이민 추방 확대와 이민 규제 강화 등의 정책 변화는 미국 인구 증가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다.
- 뉴욕시 자체 인구도 감소했으나,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보면 소폭 성장을 기록했다.

기사

[오일]

CNBC: Higher gas prices from Iran war could offset bigger tax refunds from Trump's 'big beautiful bill'

“휘발유 가격 부담이 트럼프 감세 효과보다 크다”

-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트럼프 감세로 늘어난 세금 환급액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오늘 목요일 기준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98달러를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약 33% 폭등했다.
- 반면 국세청(IRS)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13일 기준 개인 납세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62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50달러 늘어난 금액이지만, 치솟는 기름값이 이 혜택을 사실상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Next, H&M Warn of Consumer Impact If Middle East War Persists

H&M 등 의류업체들, 전쟁 계속 시 인플레이 우려

의류 업체들인 Next와 H&M이 중동 지역의 분쟁 장기화로 비즈니스를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의류 유통업체 넥스트는 단기적으로 1천5백만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분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품 가격을 1.5%에서 2%가량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H&M 역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독일의 화학 기업인 BASF SE와 Lanxess AG등은 이번 분쟁 여파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6,224.70	-203.9	-0.44%	📉
US 500	6,541.20	-50.7	-0.77%	📉
Dow Jones	46,235.39	-194.10	-0.42%	📉
S&P 500	6,541.41	-50.53	-0.77%	📉
Nasdaq	21,699.71	-230.11	-1.05%	📉
S&P 500 VIX	26.81	+1.48	+5.84%	📈
Dollar Index	99.642	+0.243	+0.24%	📈

미국 USD
1,506.70
▲2.20 +0.15%
03.26. =

일본 JPY
944.25
▲0.43 +0.05%
03.26. =

유로/달러
1.1558
▼0.0047 -0.40%
03.25.

유럽 EUR
1,739.49
▲0.06 0.00%
03.26. =

중국 CNY
217.88
▼0.08 -0.04%
03.26. =

영국 파운드/달러
1.3362
▼0.0037 -0.28%
03.25.

환전고시환율

국제시장환율

🇺🇸 미국 USD

1
1 달러

🇰🇷 대한민국 KRW

1,504.30
1,504.30 원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